

광주 제조업 1분기 경기전망 먹구름

코로나 재확산에 원자재값 상승 BSI 92...전분기보다 21P 하락 철강·금속가공업계 가장 낮아 73% "내년 사업계획도 못 세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미처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광주지역 제조업계의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12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자료에 따르면 내년 1분기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2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113)보다 무려 21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상당수 지역기업들이 코로나19 재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수요 감소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분석된다.

또 지난 4분기 실적은 '95'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 지역감염 증가와 내수 및 수출입 부진 등으로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등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내년 1분기 업종별 전망을 보면 '철강·금속가

공' 업계 BSI는 6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발주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상승, 내수부진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기 전망치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금속광물·유리' (75) 업종 역시 코로나19 장기화와 계절 비수기 돌입으로 체감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고무·화학·플라스틱' (91) 업종 역시 거처져 발주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구조 악화로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역 주력산업인 '전기·전자·IT' (89) 업종도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반도체 부품 수급 불안 등으로 호전을 기대하지 못했으며, '자동차·부품' (83) 업종도 글로벌 시장의 수요증가에도 반도체 수급 불안 탓에 체감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식음료' (125) 업종은 명절시즌 기대 및 간편식 구매 증가로 전 분기보다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고, '기계·금형' (111) 업종도 수주량 증가와 생산, 투자활동 증대로 경기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82)은 감염 확산에 따른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조사됐고, 중소기업(91) 역시 원정 기업의 발주량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 우려로 체감경기가 전 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봤다.

수출기업(89)은 코로나 확진자의 전 세계적인 급증에 소비심리가 약화되고, 민간투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준치를 밑돌았고, 내수기업도 생산 원가 상승과 내수위축으로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역 제조업계는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대부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내년 사업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73.2%)고 응답했으며, '수립을 완료'했다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

사업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 사업계획·전략 수립이 어렵다' (54.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내년 기업경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대내외리스크(복수응답)로는 '원자재가격 상승' (84.3%)과 '코로나 여파지속' (52.8%), '부품조달 등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차질' (44.1%) 등을 꼽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세계적인 코로나 재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내수확대와 수출증대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규제완화, 세제 지원 등을 통한 기업협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효성 200억원대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판결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2부(신종오 김재욱 이완희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1000여만원 가운데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조 명예회장)가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과세 대상 연도인 2006년부터 9년이 지나서야 과세 처분이 이뤄져 제척기간(7년)을 넘겨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과세 당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인 만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

한전 '캡코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

경영진·노사·외부 전문가 참여

한국전력이 모든 경영진과 노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캡코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사내 최고 심의 기구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방향과 주요 정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전은 지난 28일 'KEPCO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사내 최고 심의 기구이다. 한전의 모든 경영진과 노동조합 대표, 사내 MZ세대 직원, 전력그룹사 본부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정승일 한전 사장을 위원장으로, 주재각 지속성장전략처장이 간사를 맡는다.

위원회는 ▲전력그룹협의회(발전공기업 본부장급), 노사 실무 협의회, 전력사업 협력사 협의회로 구성된 '현안 협의체' ▲'사내 심의위원' (전 경영진·노동조합) ▲캡코 탄소중립 자문단·MZ 넷-제로 보드 등 '자문 그룹'으로 구성된다. /백희준 기자 bhj@

자문단을 이끌 6명의 외부 자문위원에는 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장, 김병일 삼일회계법인 상무, 박호정 고려대 교수, 원장목 한양대 에너지기술융합정책센터장, 정서용 고려대 교수, 조은애 카이스트 교수가 참여한다.

사내 20~30대 MZ세대 직원 30명은 'MZ-제로 보드'를 구성해 탄소중립 정책 결정과정에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추진과제를 심의하고 해상풍력 및 신기술 실증단지 등 해당 현장 점검, 에너지 분야 국내외 전문가 초빙, 글로벌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전의 역할과 과제 및 전력그룹 협력 방안'을 심의했다. 이날 검토한 6개 핵심 역할과 과제는 ▲계통건설-운영 최적화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선도 ▲에너지 소비 효율화 촉진 ▲전력생산-수요 분산화 주도 ▲전력생산 탈탄소화 선도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등이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전남중기청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내수·수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2일까지 '2022년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내수·수출 중소기업이 규모와 역량에 맞는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전국적으로 76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약 2500여개의 기업을 선정할 뒤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수출 성장단계별로 최소 3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기업은 다양한 수출지원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1차 접수는 접수 기간 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세부적인 문의는 중기청 수출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수출바우처는 1년에 2회에 걸쳐 모집하고 있으며, 2차 모집은 하반기에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2021년도 수출바우처 사업에는 광주 56개사와 전남 68개사 등 광주·전남지역 124개사가 선정돼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지난해 광주·전남 제조업 성장·수익 모두 악화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은 부채는 증가하고 매출과 이익은 감소하는 등 전년보다 성장·수익·안정성 모두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광주·전남지역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성장성)은 2019년 1.9%에서 지난해 4.5%포인트 하락한 -2.6%를 기록했다.

전국 매출액 증가율(-2.3%)을 하회하는 수치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 제조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4.6%에서 -8.0%, 중소기업은 7.4%에서 2.3%로 매출액 증가율이 하락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수익성)은 직전 4.2%에서 지난해 3.7%로 떨어져 전국 평균(4.6%)을 밑돌았고,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역시 3.9%에서 2.8%로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4.6%)에 미치지 못했다.

부채비율(안정성)은 110.6%에서 121.7%로 11.1%포인트나 높아졌다. 전국 평균(76.3%)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작년 지역 제조업계는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낮아졌으며, 빚이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파악된다.

비제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은 개선됐으나 안정성에서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2.1%로 전년(0.5%)보다 1.6%포인트 올랐고,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1.7%에서 5.3%로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93.29 (-26.95)
↑ 코스닥	1028.05 (+0.61)
↓ 금리 (국고채 3년)	1.783 (-0.003)
↓ 환율 (USD)	1186.50 (-1.50)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